

주목! 헌법의 재발견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흔하디흔한 말이 되어버린 '헌법재판'. 대통령 탄핵과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촉발된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지만, 정작 헌법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또한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저자는 한국 사회를 요란케 했던 헌법재판의 주요 결정들을 통해 헌법 정신을 고찰하고 있다. 특별히 인권과 양심, 신체, 영화, 표현, 언론, 집회, 행복, 평등 등 테마는 요즘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들을 짚어주고 있다. 일상에서는 증발해 버린 우리의 존엄성과 권리를 새롭게 되새길 수 있는 책이다.

인문학과 과학의 유쾌한 만남

많은 학자들이 학문의 크로스오버를 이야기하지만, 수능만을 위해 달려야 하는 대한민국 중고등학생들에게, 학문의 크로스오버는 고사하고 인문학과 교양 과학이라는 명제는 그저 허울 좋은 미망일 뿐이다. 저자는 현장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인문학의 화두들을 과학에서의 사례들과 연결 짓는 영역 전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유연한 사고력을 키워주고 싶은 바람을 가진 사람이다. 원리와 공식마저 그 인과관계를 따져 묻기보다, 통째로 외워버리고야 마는 청소년들에게,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수없이 고민한 저자의 내공을 선물한다.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쓰여졌다지만, 국어 선생님이 쓴 인문학과 과학의 어우러짐이 궁극하다면, 그리고 그 기본기를 다지고 싶다면 일독할 가치가 있다. **김**

글_장동석 기자



'셰익스피어&컴퍼니' 서점 주인장의 회고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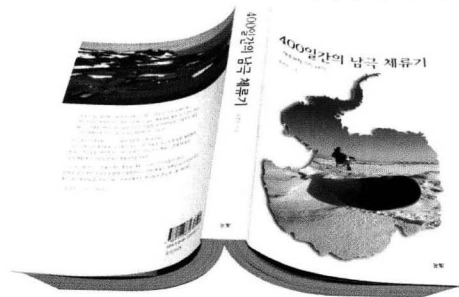
책을 접하다 보면, 꼭 한 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파리의 서점 '셰익스피어&컴퍼니' 서점 주인장 실비아 비치를 만날 수 없다는 게 아쉽다. 1919년 11월에 파리 레프트뱅크 뒤퐁트랭 가에 문을 연 셰익스피어&컴퍼니'는 2년 후에 오데옹 가로 옮긴 후 그곳에서 20여 년간 프랑스에 미국문학을 전파한 미국문학 전문 서점이다. 우리가 책으로만 접해야 했던 앙드레 지드도 셰익스피어&컴퍼니를 방문한 두 번째 손님이라고 한다. 지드뿐만 아니라 제임스 조이스, 조지 무어, 어니스트 헤밍웨이 등 저명한 문학인들이 이 서점을 사랑방 삼아 드나들었다고 한다. 소설로만 읽어왔던 저자들을 실비아 비치는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저자가 책 제목을 착각해 잘못 쓴 부분을 역자가 바로 고쳐 준 점은 책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한다.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외쳤던, "18차 하나로!"

2004년 1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400일간 남극 세종과학기지 18차 의무대로 활동한 저자의 남극 체류기이다. 저자는 남극의 모습을 1만여 장의 사진으로 담고, 잔잔한 에세이로 남극생활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끝없이 펼쳐진 빙산과 빙하, 아름답지만 위험천만한 크레바스, 불리자드, 은하수가 쏟아져 내리는 낭만적인 남극의 밤하늘 그리고 남극 세종과학기지의 생활모습을 담은 사진과 글은 흥미진진하다. 저자가 찍은 남극의 다양한 장면도 책에서 눈을 떼 수 없게 만들지만, 편안한 문명을 뒤로하고 원시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세종과학기지 대원들의 삶이 극적이다. 남극에 대해 '눈, 바람, 얼음'으로 기억하고 있더니, 가보지 않고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단어들이다. **김**

글_정윤희 기자



- 《헌법 줄게 새법다오》 박성철 지음 | 이매진 | 368쪽 | 값 12,500원
- 《국어선생님의 과학으로 세상읽기》 김보일 지음 | 휴머니스트 | 364쪽 | 값 15,000원
- 《셰익스피어&컴퍼니》 실비아 비치 지음 | 박중서 옮김 | 뜨인돌 | 343쪽 | 값 13,000원
- 《400일간의 남극 체류기》 홍종원 지음 | 눈빛출판사 | 216쪽 | 값 28,000원

지형 알고보니 영화가 더 재미있네!

'지형'이란 땅의 생긴 모양을 뜻한다. 삶의 터전을 지역이라고 할 때 지역의 환경 중 중요한 요소가 바로 지형이다. 학창 시절 지리 수업 시간에 왜 배우는지조차 모르면서 지형 타입을 암기하기 바빴던 지루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책이 보여주고자 하는 점은 단순하다. 인간 생활을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설명 가능한 지역의 자연환경을 '영화'라는 영상매체를 통해 즐기면서 살펴보자는 의도다. 세 명의 여성 지리학자들이 26편의 영화에서 발견한 10가지 지형을 다룬다. 단순히 영화 배경으로만 여겼던 지형을 이해함으로써 주인공의 삶과 스토리와 영상이학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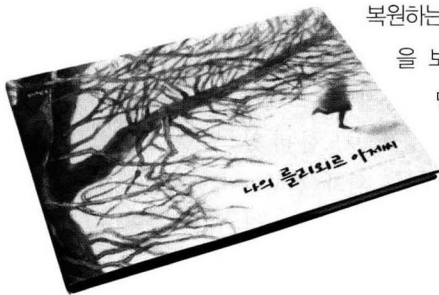
책이 품은 가치 알려주는 그림책

책방에는 새로 나온 책이 잔뜩 쌓여 있다. "그렇지만 난, 내 책을 고치고 싶어." 너무 많이 읽어서 낡고 해진 식물도감도 살릴 수 있다는 소리에 소녀는 롤리외르 아저씨를 찾아간다. 예술제본가를 뜻하는 프랑스어 '롤리외르'. 투박하지만 섬세한 손길로 소녀의 작은 책은 아름답게 살아난다. "아저씨 손, 꼭 나무옹이 같아요."

"책에는 귀중한 지식과 이야기와 인생과 역사가 빼곡이 들어 있단다. 이것들을 잊지 않도록 미래로 전해 주는 것이 바로 롤리외르의 일이다." 파리 뒷골목의 풍경을 배경으로 마음의 소통과 책의 가치를 아름답게 그려낸 그림책이다. 단지 사물로서 뿐 아니라 책이 전하는 무형의 가치와 의미까지

복원하는 롤리외르의 장인 정신, 그 책을 보고 자란 아이의 밝은 미래가 담겨 있다. **출판**

글_송보경 기자



추사의 경지, 그 '경계 없음'의 근원을 더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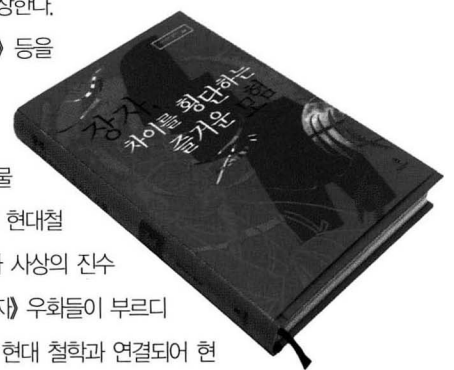
전남 장흥에 '해산도굴'이란 이름의 집필실을 마련해 귀향한 뒤 《초의》(원효)와 같은 굵직굵직한 스케일의 역사소설을 내놓고 있는 한승원의 새로운 장편 소설이다. 신필(神筆)로 불리었던 추사 김정희의 우뚝한 삶과 예술을 작가 특유의 흐르는 듯한 문체로 그려냈다. "추사의 귀로 들으면서, 추사의 머리로 사유했다"는 작가가 2년여의 집필 시간을 거쳐 완성한 이번 소설에는 추사의 작품에 깃든 절대 고독과 고뇌, 좌절과 절망 등이 절절하게 녹아있다. 삼절(三絶)을 이룬 천재 예술가였지만 오만하고 타협할 줄 몰랐던 추사. 작가는 그런 고정관념에 이의를 제기하며 북학파 선구자로서의 추사, 세도정치와 맞선 절개있는 정치가로서의 추사, 양자와 서얼 자식을 둔 한스런 아버지의 추사처럼 새로운 맥락에서 추사를 발견해 낸다. 추사의 글씨가 이루어내는 궁극의 경지, 그 '경계 없음'의 근원을 더듬는 작품이다.



'소통'과 '연대'의 철학자, 장자

장자의 사상을 정치 철학으로 해석한 책이다. 흔히들 '신선 = 장자' 정도로 알고 있는 그의 사상을 현실 세계의 삶에 기반해 '소통'과 '연대'의 차원에서 풀어냈다. 저자는 《장자》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해묵은 오해 속에 방치되었다며 장자는 "관념적 시인"이나 "고독한 은둔자"가 아닌 "인간 사이의 소통, 나아가 자유로운 연대를 꿈꾸었던 철학자"라고 주장한다. 전작 《장자의 철학》《장자&노자》 등을 통해 장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보여주었던 저자는 이번 책에서는 동양의 사유 전통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서양 현대철학의 개념까지 적극 활용해 장자 사상의 진수를 보여준다. 2천여 년 전의 《장자》 우화들이 부르디외, 낭시, 투르니에, 들뢰즈 등의 현대 철학과 연결되어 현 재적 의미를 구축해 나가는 것은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다. **출판**

글_이주연 기자



- 《영화 속 지형 이야기》 양희경 · 장영진 · 심승희 지음 | 푸른길 | 256쪽 | 값 15,000원
- 《나의 롤리외르 아저씨》 이세 히데코 글 · 그림 | 김정화 옮김 | 청어람미디어 | 56쪽 | 값 10,000원
- 《추사》(전2권) 한승원 지음 | 열림원 | 각권 330쪽 | 각권 값 9,500원
- 《장자, 차이를 횡단하는 즐거운 모험》 강신주 지음 | 그린비 | 296쪽 | 값 14,900원